

위대한 김일성 동지와

김정일 동지의 혁명사상

으로 철저히 무장하자!

# 로동신문

조선로동당 중앙위원회 기관지

제316호【루게 제24364호】주제102(2013)년 11월 12일(화요일)

위대한 김정은 동지

따라 최후의 승리를

향하여 앞으로!

##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 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인민군 제4차 적공일군열성자회의 참가자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최룡해동지, 리영길동지, 장정남동지, 변인선동지, 김수길동지, 량철성동지가 여기에 함께 참가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를 모시고 뜻깊은 기념사진을 찍는 크나큰 영광을 지닌 참가자들은 끝없는 감격과 환희에 넘쳐있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께서 촬영장에 나오시자 참가자들은 적공일군열성자회의를 마련해주시고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열 가슴깊이 간직하고 인민군대의 적공들에게 따뜻한 인사를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인민군대의 적공일군열성자회의를 마련해주시고 역사적인 서한을 보내주시였으며 오늘은 자기들과 기념사진을 찍어 주시는 최고사령관동지를 우러러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를 울리며 열광적으로 환영하였다.

눈이 오나 누가 보건말건 당과 수령만을 굳게 믿고 따르며 사회주의 제도옹위의 전초선을 믿음직하게 지켜가고있다고 하시면서 그들의 위훈을 높이 평가하시었다.

경애하는 최고사령관동지께서는 참가자들이 선군혁명위업의 최후승리에 대한 확고한 신념을 안고 자기들앞에 맡겨진 무겁고도 영예로운 사명을 다해가리라는 기대와 확신을 표명하시기도 그들과 함께 기념사진을 찍으시었다.

기념촬영이 끝나자 또 다시 폭풍같은 《만세!》의 환호와 《김정은 결사옹위!》 구호의 함성이 터져 올라 장내를 진감하였다.

전체 참가자들은 경애하는 최고사령관 김정은동지의 역사적인 서한에 제시된 전투적 과업과 최고사령관동지께 올린 맹세문에서 다짐 결의를 철저히 관철할 불타는 열의에 충만되어있었다.

본사정치정보단

##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 여러 나라 당 및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조선로동당 제1비서이시며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시며 조선인민군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인민의 최고령도자 김정은동지께서는 조선로동당장건 68호에 즈음하여 축전을 보내어온 여러 나라 당 국가수반들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라오스인민혁명당 중앙위원회 총비서인 라오스인민민주주의공화국 주석, 수리아인민공화국 대통령, 팔레스티나국가 대통령인 팔레스티나해방조직 집행위원회 위원장, 모잠

비크해방전선당 위원장에게 답전을 보내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답전들에서 열렬한 축하와 따뜻한 축원을 보내준데 대하여 깊은 사의를 표하시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해당 나라 당들의 강화발전과 나라의 번영을 위한 그들의 책임적인 사업에서 보다 큰 성과가 있을것을 축원하시면서 우리 나라와 여러 나라들사이의 친선협조관계가 계속 강화발전되리라는 확신을 표명하시었다.

본사기자

##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쿠웨이트에서 결성

김정일대원수회고위원회 결성식이 3일 쿠웨이트의 쿠웨이트시에서 진행되었다. 결성식에는 쿠웨이트조선 친선협회와 쿠웨이트민족사업업의 인사들이 참가하였다.

결성식에서는 회고위원회 위원장으로 쿠웨이트민족사업업 판장인 쿠웨이트조선친선협회 위원장 유세프 알 아미리가 선출되었다. 회고위원회는 11월 4일부터 12월 17일까지를 회고기간으로 설정하고 위대한 김정일대원수님의 불멸의 업적을 소개하는 다양한 정치문화행사를 조직하기로 하였다.

본사기자

## 백두산 절세 위인들의 영상을 형상한 모자이크 벽화를 여러 단위에 모시었다

백두산절세위인들의 태양상을 형상한 모자이크벽화 《위대한 수령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 《위대한 령도자 김일성동지는 영원히 우리와 함께 계신다》가 문천시, 리원군, 장진군, 부전군, 허천군, 동창군, 요덕군에 모셔졌다.

조선로동당장건 68호에 즈음하여 로씨야 당당들이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진 문헌을 모시고 《10월 10일 조선로동당장건 68호를 맞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당창건기념사와 함께 올렸다. 금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6년 10월 17일에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에 역사적부리를 두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김일성동지의 존함

사업에서 전란을 일으키도록 구제적인 가르침을 주시고 그 실현을 위한 투쟁을 현명하게 이끌어주시었다. 인민을 위한 길에 언제나 함께 계신 위대한 수령님께서와 어버이장군님께서와 현지지도하시면서 지방공업과 농업을 발전시키고 산림조성, 역사문화유적보존관리 등을 잘하기 위한 강령적인 과업들을 제시하시었다. 사회주의건설에서 굳이 차지하는 위치와 역할을 밝혀주시고 지난날 궁벽하던 산골마을을 도시와

농촌을 편결하는 지역적거점으로, 인민의 행복이 넘치는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켜주시는 절세위인들의 불멸의 업적이 장진군, 부전군, 허천군, 동창군, 요덕군에 아로새겨져있다. 해당 단위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에 대한 다함없는 경모의 정을 안고 태양상모자이크 벽화들을 최상의 수준으로 모시는데 총력을 바치었다. 성진내화물공장, 평양시 구빈측 산전문화동농장에 모신 모자이크 벽화에는 혁명의 성산 백두산에 오르시어 주체조선의 창창한 앞날

을 그려보시는 위대한 수령님과 어버이장군님의 영상이 형상되어 있다. 여러 단위에 모자이크벽화를 모신것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주체의 태양으로 천세만세 높이 모시며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선군혁명명령을 충직하게 받들어 이 땅위에 사회주의강성국가를 반드시 일떠세우려는 우리 인민의 드림없는 신념과 의지의 발현으로 된다. 모자이크벽화준공식이 해당 단위들에서 진행되었다.

본사기자

## 당건설위업에 쌓아올리신 불멸의 업적

조선로동당장건 68호에 즈음하여 로씨야 당당들이 최근 인터넷홈페이지에 특집하였다. 수령 김일성동지의 혁명활동사진 문헌을 모시고 《10월 10일 조선로동당장건 68호를 맞이하는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이라는 제목의 글을 당창건기념사와 함께 올렸다. 금은 조선로동당은 위대한 수령님께서 1926년 10월 17일에 결성하신 타도제국주의동맹에 역사적부리를 두고있다고 지적하고 다음과 같이 계속하였다. 조선로동당이 김일성동지의 존함

으로 불리우고있는것은 그이께서 당의 창건과 강화발전에 커다란 업적을 쌓아올리시였기때문이다. 당의 령도밑에 조선인민은 미제의 무력침공을 반대하는 위대한 조국해방전쟁에서 무비의 용감성과 애국심을 발휘하여 제국주의의 피수를 타승하였다. 조선인민은 전후 어려운 조건에서 사회주의국가를 일떠세우기 위한 영웅적인 투쟁을 전개하였다. 청소년 조선의 경제건설과 국방건설, 인민생활향상에서 커다란 성과들과 같이 계속하였다. 사회주의조선은 오늘도 세계의 관

심을 집중시키고있다. 조선이 가장 엄혹한 시련을 겪었던 시기 김일성동지께서는 선군의 기치를 더욱 높이 드시었다. 그이의 선군정치밑에 조선의 일심 단결은 더욱 공고화되었다. 김일성동지의 령도따라 조선로동당은 김일성동지의 유훈을 받들어 온갖 시련속에서도 인민대중중심의 사회주의를 굳건히 수호하였다.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은 핵보유국으로 되었다. 조선의 핵보유는 미국의 항시적인 핵선제공격위협을 물거품으로

만들었다.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령도밑에 인공지구위성 《광명성-3》호 2호기의 발사를 비롯하여 조선인민이 거두고있는 기적적인 성과들은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일성동지의 위업이 변함없이 이어지고있다는 것을 실증해주고있다. 조선인민이 행복할것과 주체의 사회주의건설에서 새로운 승리를 이룩할것을 축원한다. 《로씨야의 공산주의자들》당은 백두산절세위인들을 모시어 승리만을 떨치고있는 우리 당의 영광스러운 역사를 소개하는 글을 편집하였다.

본사기자



특파기자들이 보내온 소식

# 지방의 원료원천을 탐구동원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인다

##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에 힘을 넣어

갑산군의 지방공업공장들에서 기술개건의 불길이 세차게 타고르고있다.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역사적인 창성면석회정신을 새 세기의 요구에 맞게 철저히 구현하여 군을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꾸밀 불타는 열의에 넘쳐 자체의 힘으로 지방공업공장들을 기술개건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내밀어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성과를 거두고있다.

경애하는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였다.

《지금의 형편에서 지방산업공장들을 잘 돌려도 인민생활에서 많은 문제를 해결할수 있습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일군들은 지방공업과 농촌경리를 다 같이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대한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있다. 특히 창성면에서 이룩한 좋은

성과와 경험을 당원들과 근로자들속에 잘 알리우어 지방공업공장들을 현대화하고 인민소비품생산을 적극 다그치도록 떠밀어 주고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일찌기 갑산군을 현지도하시면서 이 고장은 살기 좋은 고장이라고 하시며 군의 인민들이 세상에 부럽지 않 할 희망을 펼쳐주시였다.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념원을 현실로 꽃피우기 위한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의 헌신적인 투쟁에 의하여 해방전 사람 못살 고장으로 소문났던 갑산군이 로동당시대에 와서 살기 좋은 인민의 락원으로 전변되였다.

군에서는 자기 군도 창성면과 더불어는 산간군인 조건에 맞게 산업예, 산나물을 비롯한 지방공업의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현대화를 적극 추진하고 있다. 특히 창성면에서 이룩한 좋은

있는 군소비품생산이 늘어나는 데는 원료원천을 적극 동원하여 현대화하는것과 함께 이 공장들을 생산정성화하는 본보기단위로 정하고 여기에 역량을 집중하였다. 특히 과학자, 기술자들과의 사업을 짜고들어 기초식품생산과 당과류생산공정의 컴퓨터화가 실현된 텃쟁이식료공장을 비롯하여 군의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할수 있게 하였다.

군중공업의 면모도 플라보게 변모되였다.

면모있게 일선된 공장에서는 생산공정의 현대화가 실현되어 2명의 로동자가 컴퓨터에서 30여명의 로동자를 대신하고있다. 종이의 질도 이전보다 훨씬 좋아졌다. 군에서는 종이공장의 생산을 정성화하여 학생들에게 공평한 학습용은 물론 교원들이 요구하는 교수안종이도 충분히 보장해줄수 있게 되었다.

군고려약공장을 꾸릴 때에도 군에서는 고려약생산에서 전국적으로 앞선 단위를 찾아가 그들의 경험을 배워오게 하고 일군들과 기술자들의 눈을 띄워주는 방법으로 공정의 현대화를 다그쳤다. 이 과정에서 생산공정 컴퓨터에 의하여 실시간 및 자동화할수 있는 엑스화공정이 새

로 훌륭히 꾸러지게 되었으며 대우연료발전기까지 제작설치되어 생산정성화에 이바지할수 있게 되었다.

지방공업공장들의 현대화가 힘있게 벌어지는 가운데 군의 공장은 능력이 확장되어 년산 15만장의 토기와의, 군영예군인수지일용품공장은 내부에 비를 탐구동원하여 여러가지 수지일용품들과 천정판들, 군화공장에서는 질 좋은 외장재와 아연화물을 생산할수 있게 되었다.

군에서는 지방공업공장들의 생산을 활성화하는것과 함께 8월3일인민소비품작업반에서 소소비품생산을 늘이도록 하고 있다. 그리고 가두인민반들에 50개의 가내작업반들을 내어 여러가지 질 좋은 소비품들을 생산하게 하였다.

인민소비품생산이 늘어나는 데 맞게 군에서는 8월3일인민소비품전시회장을 잘 꾸려놓고 여기에서 전시회를 의의있게 조직하여 서로의 경험을 교환하며 소비품의 질을 부단히 높이고 있다.

군에서 생산되는 기초식품과 각종 생그릇, 초콜릿품 등 비롯한 인민소비품들은 주민들속에서 인기가 높다.

해마다 산과 골짜기에서 따들이는 잣, 도토리, 매지치, 들배를 비롯한 산열매들과 산나물들이 지방공업공장들의 좋은 원료로 되고있다.

군에서는 원료기지를 튼튼히 꾸리고 농작물비배관리를 과학기술적으로 하여 정보당 수확고를 높이는것과 함께 여러가지 농토산물을 적극 리용하여 인민소비품생산을 늘이고있다. 이와 함께 원료원천을 최대한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공장들에 원료를 원만히 보장해줄수 있도록 하고있다.

제대군관살림집을 비롯한 수백동의 소총, 단출살림집들과 국수집, 민족식당, 특산물식당, 소년회관, 청년공원, 화초원, 양어장이 건설되어 군의 면모가 일신된 가운데 소비품생산이 늘어나 군주민들의 생활은 날이 갈수록 향상되고있다.

군당위원회의 지도밑에 군의 협동농장들에서는 고려형순환생산체제를 철저히 세워 농업과 축산을 다같이 발전시켜 인민생활을 향상시키는데 이바지하고 있다.

오늘 군의 일군들과 근로자들은 땅의 숭고한 뜻을 받들어 자체의 힘으로 군살림살이를 잘 꾸려 군을 더욱 살기 좋은 고장으로 전변시키고있다.

특파기자 전 철 주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군이 자체로 살림살이를 꾸려나가기 위하여서는 군의 자연조건을 효과있게 리용하며 지방의 모든 원천과 가능성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합니다.》

조선군에서 산을 갠 유리한 조건에 맞게 지방원료를 효과있게 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에 계속 큰 힘을 넣고있다.

포도수출장, 장공장, 목재가공공장, 종이공장을 비롯한 군의 지방공업공장들과 가내작업반들에서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는 소비품들과 생활필수품들의 생산을 늘이고있다.

주제55(1966)년 9월 조선군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포도수출공장을 비롯한 군의 여러 지방공업공장들을 돌아보시며 산을 갠 곳에서는 산을 잘 리용하여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하여야 한다고 가르치주시였다.

군의 일군들은 어버이수령님의

그날의 가르치심을 심장에 새기고 산을 갠 유리한 자연조건에 맞게 지방원료를 적극 동원리용하여 지방공업을 발전시키기 위해 힘껏 노력하고있다.

군에서는 해마다 군중적운동으로 머루, 대배, 들배, 도토리 등 산열매를 따들이고 고사리, 고비를 비롯한 산나물을 채취하여 지방공업공장들의 원료로 보장하고있다. 그리고 피나무, 가래나무 등 좋은 목재를 마련하여 목재가공공장, 종이공장들에 넣어주고있다. 뿐만아니라 여러 정보의 왕갈포전에서 해마다 많은 양을 생산하여 뽕싹이었고 쓸모있는 초콜릿제품도 많이 생산하고있다.

포도수출공장에서 도토리, 머루, 대배, 들배를 가지고 가지질 좋은 청양유료생산을 정성화하고있다. 공장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은 산열매들을 정출용기들에 담아 건조실냉장고에 보관해놓고 질 좋은 음료생산을 계획적으로 내밀었다. 공장에서 머루, 대배로 만든 음료는 인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군에서는 올해에만도 많은 양의 산열매를 군중적운동으로 따들이어 포도수출공장에 보내주어 사탕가루도 우선적으로 보장해주었다.

장공정에서는 판장, 간장을 비롯한 기초식품생산을 정성화하면서 많은 산나물정열음을 만들어 인민

들에게 공급해주고있다. 군에서는 해마다 공장, 협동농장들에 산나물 채취파제를 주고 어김없이 수행하도록 조직사업을 짜고들고있다.

군에서는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자면 지방의 원천을 최대한으로 탐구동원하여야 한다고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쾌한 지시와 명령을 가지고 초콜릿제품을 생산하는데 힘쓰고있다. 군의 산나물가내작업반에서 생산하는 구렁, 팥주리, 고사, 돗지리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초콜릿제품은 그 질이 좋아 인민들속에서 수요가 날로 높아지고있다. 왕갈을 조화롭게 섞어 만든 초콜릿제품은 오늘 군에 물론 다른 지방들의 인기상품으로 되고있다.

목재가공공정에서는 질 좋은 목재를 가지고 이불장, 방삼, 곁이를 비롯한 수십가지의 쓸모있고 뽕시있는 가구나 생활필수품을 생산하고있다.

종이공정에서도 학습용 필기용품, 포장용종이를 비롯한 종이제품을 생산정성화하고있다.

군의 인민소비품생산에서 지방원료에 의한 생산이 차지하는 몫은 90%이상에 달하고있다.

군의 현실은 자기 지방의 온갖 자연원천을 가지고 인민생활을 더욱 향상시키는데 대한 당정책의 생활력과 정당성을 잘 보여주고있다.

특파기자 동 세 응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질 좋은 경공업제품을 더 많이 생산하도록 하는데서 가장 중요한것은 이 부문 일군들과 로동자, 기술자들이 인민에 대한 참된 복무정신을 지니게 하는것입니다.》

경애하는 원수님의 역사적인

## 년간계획을 앞당겨 수행한 기세로 전진

신년사를 높이 받들고 라남영에 군인수지일용품공장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넘쳐 수행한 자랑을 안고 생산에서 련일 혁신을 일으키나가고있다.

**라남영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에서**

라남영에군인수지일용품공장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이 올해 인민경제계획을 3개월이나 앞당겨 끝내는 혁신을 창조하였다.

이들은 그 기세로 계속 생산적 앙양을 일으켜 10월 31일까지 인민경제계획을 14.0% 넘쳐 수행하는 성과를 올렸다.

당조직의 지도밑에 공장에서는 생산에 앞서 원료, 자체보장 대책을 철저히 세웠다. 그리하여 어려운 조건에서도 생산을 중단없이 내밀수 있도록 원료와 자재를 충분히 마련해놓았다.

지배인 강령호동무부 비롯한 일군들은 생산장정의 예비는 과학기술에 있다는 확고한 판정을 가지고 대중적기술혁신운동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공장에서는 자체의 힘과 기술로 자동도조절장치를 생산에 받아들여 많은 자재와 전기를 절약하면서 제품 품질을 높이고 생산을 원천 늘일수 있게 하였다.

일 먼저 수행하였다.

원료작업반원들도 련대적 혁신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켰다. 작업반원들은 다른 작업반들에 생산에 필요한 자재를 충분히 보장해주면서 자체의 힘으로 각종 규격의 수지판을 생산하기 위한 힘찬 돌격전을 벌리었다. 이들은 자력갱생, 간고분투의 혁명정신을 높이 발휘하면서 매달 수천에 달하는 각종 규격의 수지판을 생산하여 청진시 포함중심부전설장과 비석공장 건설장비를 비롯한 등의 여러 건설장비에 보내주었다.

일용품작업반원들은 인민의

사출직정의 일군들과 로동자들이 갖가지 수지일용품들을 더 많이, 더 좋게 생산하기 위한 투쟁의 앙양에서 힘차게 내달렸다. 직정에서는 로동자들의 기술능력을 높이기 위한 사업에 힘을 넣는 한편 사출기를 비롯한 설비들의 만가동을 보장하여 공장앞에 맡겨진 인민경제계획을 원천 넘쳐 수행하는 자랑을 떨쳤다.

올해에 들어와 10월까지 매달 생산계획을 넘쳐 수행한 이들은 그 기세를 늦추지 않고 년간계획을 앞당겨 끝내기 위한 투쟁을 계속 힘있게 벌리었다.

위대한 령도자 김정일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였다.

《식료가공공업을 발전시켜야 인민들에게 맛있고 영양가 높은 여러가지 식료가공품을 공급하여 식생활을 더욱 풍부하고 다양하게 할수 있으며 그들의 생활을 문명하게 할수 있습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여러해전 몸소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을 찾으신 어버이수령님께서 현지도하시면서 력사의 그날을 감회없이 돌아보시며 이 식료가공기술을 현대화하여 인민들이 실컷 먹을수 있도록 하라는 말씀을 붙수어 하시였다.

협동조합의 일군들과 종업원들은 위대한 장군님의 크나큰 은총속에 훌륭히 개건된 일터에

## 맛좋은 남새가공품을 많이 생산

사리원정방식료생산협동조합에서 일하는 궁지와 자부심을 안고 인민들이 좋아하는 남새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한 투쟁을 힘있게 벌리었다. 특히 남새를 더 많이 확보하는것과 함께 가공품의 질을 높이는데 힘을 넣고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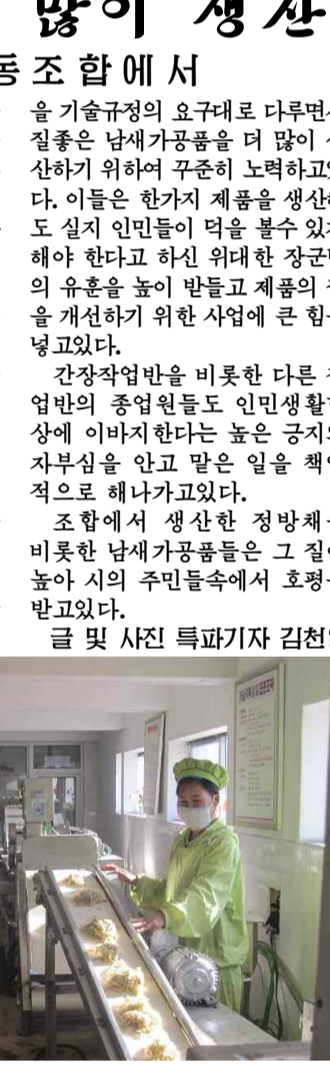
당조직의 지도밑에 일군들은 종업원들의 기술능수준을 부단히 높이고 노력하는것과 함께 과학연구기관들과 련계밑에 생산공정의 컴퓨터화를 보다 높은 수준에서 실현하기 위해 적극 노력하고있다. 조합에서는 간장생산기지를 자체의 힘으로 꾸리고 작업정비에 필요한 질 좋은 간장을 충분히 생산보장할수 있게 하였다. 장열임작업반의 종업원들은 당의 은총속에 마련된 생산설비들

을 기술규정의 요구대로 다루면서 질 좋은 남새가공품을 더 많이 생산하기 위하여 꾸준히 노력하고있다. 이들은 한가지 제품을 생산해도 수십 인민들이 먹을 볼수 있게 해야 한다고 하는 위대한 장군님의 유혹을 높이 받들고 제품의 질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에 큰 힘을 넣고있다.

간장작업반을 비롯한 다른 작업반의 종업원들도 인민생활향상에 이바지한다는 높은 긍지와 자부심을 안고 많은 일을 책임적으로 해나가고있다.

조합에서 생산한 정방제품을 비롯한 남새가공품들은 그 질이 높아 시의 주민들속에서 호평을 받고있다.

글 및 사진 특파기자 김현일



## 만경대 방문, 여러곳 참관

【평양 11월 11일발 조선중앙통신】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혁명의 성지 만경대를 방문하였다.

그들은 먼저 김보현선생님과 리보의녀사의 묘, 김형직선생님과 강만석녀사의 묘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묵상하였다.

만경대 혁명사적관을 참관하고 고향집트라에 들리신 그들은 소중히 보존되있는 사적물들을 보면서 위대한 수령 김정일동지를 높이 모시어 이 땅위에 자주로 존엄높은 인민

## 전국 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

대중중심의 사회주의 강국이 일어났으며 후손만대의 번영을 위한 만년토대가 마련되었음을 절감하였다.

대회참가자들은 대생산혁명 련대적투쟁의 불길을 세차게 지펴올리었다. 수령결사옹위의 빛나는 모범을 창조하시고 주체혁명위업의 창창한 미래를 열어놓으신 항일의 녀성영웅 김정숙동지의 고귀한 혁명생애를 가슴뜨겁게 되새기며 그들은 백두산녀성군의 동상에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삼가 인사를 드리었다.

## 대고조전투장을 또 하나의 강의실로 삼고

학습강사들은 대고 강의실들을 통해 강의를 진행한다. 하지만 광범한 학습강사 강성회동수는 거기에만 국한되지 않았다.

그의 강사활동에서 특징적인것은 들끓는 대고조전투장들을 또 하나의 강의실로 삼고 강의를 특색있게 참신하게 진행하고 있다는 사실로써 대고조전투장을 또 하나의 강의실로 삼고 강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갔다.

《학강 강연, 선동이 얼마나 절정으로 되며 실효를 거두는가는 강사들과 선동원들의 준비정도와 강의 관련 되어있습니다.》

하다면 《우리 학습강사》, 《기다려지는 학습강사》로 불리는 강성회동수가 강성국가 건설의 주요전투장들을 또 하나의 강의실로 정하게 된다는 어떤 사연이 있는것인가.

그의 시가 창평원 수령작업반에서 수령장정사업에 열심히 필요한 어느 한 자재를 해결하기 위한 협의회가 진행되던 것이다.

팔을 보지 못한 그날의 협의회를 놓고 당제보시이며 학습강사인 강성회동수는 참으로 생애가 많았다.

제기된 문제를 자체로 해결해야 한다는것은 너무도 명백한데 일부 종업원들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하던 모습은 며칠전에 진행된 강의의 실효에 대하여 다시금 생각하게 하

## 창광원 학습강사 강성희동무의 사업에서

었다.

그날 강의 령도업적을 결렬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일때 대한 강의내용에 흥분하여 결의들도 작 다진 종업원들이고 보면 더욱 무심치 스티쉬 없는 문제였다.

(백번 듣는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도 있지 않는다. 강의실에서 거둔 실효에 만족하지 말고 치열한 돌격전지 벌여지는 사회주의건설의 주요전투장으로 강의의 폭을 더욱 넓혀 나갔다.)

강성회동수는 초급당위원회의 지도방조밑에 령도업적단위인 평양화력발전연합기업소에 대한 참관을 의도적으로 조직하였다.

당의 령도업적을 결렬히 옹호고수하고 빛내일 결사의 각오밑에 없는것은 만들어내고 부족한것은 찾아내면서 전력증산의 동음을 높이 울려가는 그곳 로동계급의 투쟁기풍은 종업원들에게 큰 충격을 주었다.

그날 강성회동수는 우리 창평원에도 당의 령도업적을 충실하게 깎아내리고, 모든 시련과 난관을 당의 령도업적을 빛내여가는 우리의 신념과 의지를 검증하고있다. 이곳 로동계급의 높은 정신세계와 투쟁기풍을 따라배우자고 열렬히 호소하였다.

그후 다시 열린 협의회에서는 종업원들의 불같은 체질, 창발적인 의견들이 쏟아져나왔고 마침내 작업반에서는 그렇게 불가

## 강성희동무가 종업원들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 가지고 최첨단건설장들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초고전력전기로작업현장을 비롯하여 찾고 또 찾은 대고조전역들을 하나하나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우리 시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그 어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감으로 느끼게 한 제2의 강의의 실들이고 혁명대 학이였다.

강성희동무가 종업원들과 함께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 가지고 최첨단건설장들과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 강철직장 초고전력전기로작업현장을 비롯하여 찾고 또 찾은 대고조전역들을 하나하나가 당과 수령의 위대성, 우리 시 사회주의의 불패성을 그 어떤 말이나 글로써가 아니라 실감으로 느끼게 한 제2의 강의의 실들이고 혁명대 학이였다.

그 길에서 몸과 마음을 단련하고 불굴의 투쟁력을 키운 종업원들에게는 무슨이든 그 어떤 애로라는 것을 입에 물리지 못할것이었을 것이다. 강철직장의 투쟁기풍에 모른다.

당의 불멸의 령도업적이 깃들어있는 창평원을 보다 훌륭히 꾸리고 봉사활동을 개선하기 위한 투쟁에서 이룩된 수많은 성과들의 바탕에는 피라는 사색과 탐구, 끝없는 열정을 지니고 대중의 정선력을 힘있게 불어넣은 선군시대 모범학습강사인 강성희동무의 숨은 노력이 뜨겁게 깃들여 있다.

본사자 리 정 수



# 최첨단돌파의 불길을 세차게 일으키며 더 높이, 더 빨리!

위대한 선군령장의 애국의 호소를 높이 받들고 《마시령수도》 창조 불길높이 인민생활 향상과 강성국가건설에서 결정적 전환을 일으키기 위한 총공격전인 힘차게 벌어지고있는 격동적인 시기에 혁명의 수도 평양에서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가 성대히 진행되게 된다.

위대한 수령, 위대한 당의 령도아래 주체조선의 과학의 위력은 온 세상에 남김없이 펼쳐져 주체의 선군혁명위업을 충직하게 받들어온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뜻깊은 대회에 참가하기 위해 온 나라 방방곡곡에서 모여 왔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우리 당은 시대와 혁명의 요구로부터 과학기술중시론을 사회주의 강성대국건설의 전략적목표로 제시하였으며 사상중시, 총대중시와 함께 과학기술중시를 강성대국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내세우고있습니다.》

경애하는 원수님도 사상은 뜻도 겹겹으로 같이할 온 나라 과학자, 기술자들의 마음과 마음을 합쳐 안고 향양으로 모여온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이 크나큰 격정과 환희에 넘쳐 뜻깊은 참관의 나날을 보내고있다.

얼마나 자랑스럽고 미더운 모습들인가.

그들속에서는 우리의 혁명부력을 과학과 기술로 적극 뒤받침

해주는 믿음직한 군수공업부문의 과학자, 기술자들의 장한 모습과 마시령스기장건설장과 세로 등판기간전투장 그리고 인민경제 4대신행부문의 대고조전투장에서 달려온 과학자, 기술자들의 열정넘친 모습들도 찾아볼수 있다.

만수대업에 높이 모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동상을 찾은 그들의 열광마디에는 주체조선의 과학의 열광을 넘은 폭에 안아키우신 어머니수령님의 사랑과 믿음에 더 높은 과학연구성과로 보답해 갈 의지가 격렬히 어려있었다.

과학자, 기술자들의 가슴마다에 위대한 수령님의 과학중시에 관한 사상과 이론을 헌신기 발전하는 시대와 혁명발전의 요구에 맞게 더욱 심화발전시키기 위해 경제강국건설을 위한 투쟁에서 과학자들이 자기의 생명과 역할을 다해 나간다는 의지와 함께 위대한 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호모의 정이 뜨겁게 끓어올랐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는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우리 혁명에 이끌어오시면서 언제나 과학기술을 중시하시었고 과학기술발전이 갖는 판심을 드러하시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서는 준엄한 조국해방전쟁의 포화속에서 과학학을 창립하시어 과학연구의 전당을 마련하셨고 당과 사회주의사업에 충실한 과학자, 기술자들의 대부대를 키워주시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서는 사회발전에서 과학기술이 중요한 역할을

하는 현대의 특징을 꿰뚫어보시고 과학기술을 사상과 총대와 함께 사회주의강성국가건설의 3대기둥의 하나로 규정하시고 나라의 과학기술발전을 위하여 크나큰 로고와 심혈을 바치시었다.

고난의 행군시기 식량이 모자라고 고생하는 인민들을 두고 마음속으로 피눈물을 흘리시면서도 부강한 조국의 태일을 내다보시고 나라재산의 전부라고 할수 있는 귀중한 자금을 과학기술발전에 돌려주신 위대한 장군님.

위대한 장군님의 정력적인 령도덕에 첨단과학기술분야에서 개척되고 연구개발실패가 자라났으며 첨단산업발전의 토대가 마련되었다. 이와 함께 인민경제 여러 부문에서 주체화, 현대화, CNC화가 힘있게 추진되었다.

특히 미세와 그 추종제품들의 악랄한 방해책동속에서도 우주 기술과 CNC기술이 세계적높이 올라서는 기적이 창조되었으며 우리의 과학기술은 새로운 높은 단계, 최첨단돌파시대에 들어서게 되었다.

절세의 위인들의 세심한 보살 피시고 따뜻한 사랑과 믿음속에 우리의 과학기술은 얼마나 자랑찬 성과를 달성하였는가.

인공지구위성제작 및 발사국! CNC기술의 명맥을 틀어쥘 나!

세 세기 산업혁명의 불길높이 과학기술강국의 지위에 올라선 내 나라, 내 조국의 강대함과 존엄을 말해주는 이 금지높은

부름들을 되새길 때마다 숨이막히던 위대한 모습에 있다.

주체과학기술의 대전성기를 펼쳐주게시는 우리의 정애하는 김정은원수님!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과학중시사상을 빛나게 계승하시며 총대와 함께 과학기술을 틀어쥘 나! 이 땅에 세상이 부러워하는 사회주의강성국가를 일떠세우시기 위해 불철불식하고 로고를 바쳐가시는 그이는 세계가 공인하는 걸출한 령도자이다.

경애하는 원수님께서서는 우주 및 국방과학분야에서 이룩한 성과를 포대히 하여 최첨단기술이 나라의 과학기술을 세계적높이에 올려세우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 함으로써 우리 나라를 당당한 경제강국의 지위에 우뚝 올려세울 위대한 구상을 펼쳐주시었다.

우리 과학자들을 위해서라면 천만말도 아끼고 과학이 누구 나 부러워하는 과학연구중심을 훌륭히 갖춘 현대적인 연구소들과 실험실을 마련해주고 과학자살람까지 통째로 안겨주시고 그 사랑, 그 은정은 우리 과학자들도모두가 받아안은 크나큰 믿음이었다.

《정령 경애하는 원수님은 우리 과학자들의 위대한 스승이십니다. 우리 식의 첨단산업건설과 첨단기술개발구축사업을 내담하고 총이 크게 작전하고 강하게 밀고나가야 한다고. 모든 부문을 과학화한다는 경제강국 건설과 선진혁명건설을 다그치는데서 나서는 중요한 과업이

라고 밝혀주신 그 가르치심을 순간도 잊지 않았습시다.》

이것을 어찌 한 과학자의 심정이라고 하겠는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마음속에서 그이는 위대한 령도자이기 전에 친근한 스승, 자애로운 아버지로 정겹게 자리잡았다.

무진화, 무궁화가 훌륭히 실현된 국가과학원 중앙연구소에 가면 우리 인민들에게 더 많은 버섯을 먹이시려고 마음씀으신 위대한 대원수님들의 넋을 현실로 꽃피우시기 위하여 현대적인 버섯연구소건설을 받기하시고 선군혁명명도를 이어가시는 것처럼 바쁘신 가운데서도 설계와 시공, 현대적인 설비들을 갖추어주는 문제에 이르기까지 하나하나 가르쳐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이 안겨오고 국가과학원 잔디연구중심에 가면 내 나라, 내 조국을 아담하고 살기 좋은 인민의 낙원으로 꾸려주시려고 국토관리사업에서 지피식물이 가지는 중요성을 깊이 헤아리시고 현대적인 잔디연구중심을 건설할것을 친히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가 안겨옵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은하과학자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최상의 수준에서 임태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생각하며 하루백하 유혹하고 문명 생활을 마련해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시던

은 나라 과학자들이 크나큰 격정을 금치 못하며 더 높은 과학연구 성과로 보답해갈 불같은 맹세와 결의를 다지셨다.

과학기술을 발전시켜도 남들이 걸은 길을 따라만 갈것이 아니라 년대와 년대를 뛰어넘어 비약을 일으키며 한다고 결을 걸을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령도아래 세계를 보는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의 눈이 높아지고 가는 곳마다에서 과학과 기술로 경제강국의 활로를 열어나가는 최첨단돌파전의 기수들로 되고있다.

우주기술에서 첨단을 돌파하여 짧은 기간에 나라의 국제적 지위를 비상히 높인것처럼 전반적 과학기술사업에서 비약을 일으키며 한다고 하시며 누구나 과학기술을 배우고 과학기술의 요구대로 일하도록 이끌어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혁명 령도아래 현대적인 잔디연구중심을 건설할것을 친히 발기하신 경애하는 원수님의 크나큰 로고가 안겨옵니다.

우리 당의 과학기술중시정책의 정당성을 실천으로 증명된 과학자들에게는 아까울것이 없다시며 은하과학자로서의 책임과 임무를 충실히 수행하는 최상의 수준에서 임태위주시는 경애하는 원수님의 사랑과 은정을 생각하며 하루백하 유혹하고 문명 생활을 마련해주셨다고 하는 생각을 하게 된다고 하시던

그날의 말씀이.

오늘 과학자, 기술자들에게는 당면한 경제문제와 인민생활 문제를 풀며 경제강국건설에서 전진적으로 나서는 과학기술적 문제들을 해결하여야 할 중대한 과업이 나사고있으며 국제무대에서 주체과학기술로 조국의 존엄과 영예를 높이 떨쳐야 할 성스러운 사명이 지워져있다.

최근에만도 김일성종합대학 강진운동부는 우주의 신원을 관한 새로운 소원사리를 내놓아 국제학계의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켰으며 조선혁명군인개발교류사업의 과학자, 기술자들이 연구개발하고 공업적방법으로 생산하고있는 천연염색염이 세계적인 패권을 당당히 쟁탈을 비롯하여 주체과학기술의 위력을 과시하는 놀라운 성과들이 이룩되었다.

우리 식 컴퓨터조직체계, 바둑 프로그램, 기계인공프로그램, 내장형조직체계, 전용집적회로 설계기술, 컴퓨터활성생체제, 주사결핵미경, 피형정환기술, 지하단층촬영기술, 압전소자기술, 버 1대잡종기술 등 수십개의 과학기술부문들과 대상을에서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은 세계 선진수준에 명렬하게 도전하고 있다.

전국과학자, 기술자대회 참가자들과 함께 온 나라 전체 과학자, 기술자들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마련해주신 과학기술봉파의 고매를 여격해 들어주고 더욱 박차를 가하여

이 땅에 주체과학기술의 대전성기를 펼쳐갈 더 높은 신심과 열정에 넘쳐있다.

지금 어느 부문, 어느 단위에 서나 모든 사업을 과학적기초에서 설계하고 착진하며 과학적 원리와 과학기술에 의거하여 경제 건설사업에서 최상의 성과를 거두기 위한 작전들이 그 어느때보다도 빈틈없이 진행되고있다.

혁명의 과학기술중시론을 대하는 편집과 태도는 온 당과 혁명에 대한 관점과 태도, 사회주의에 대한 관점과 태도로 되며 우리의 경제를 지식경제로 전환시키는것은 우리 과학자, 기술자들이 해결하여야 할 과제이다.

—원수님은 과학기술의 시대, 지식경제시대이다.

—온 나라에 과학기술열풍을 세차게 일으키며 나라의 과학기술을 하루빨리 더 높은 수준에 끌어올려라!

과학기술의 위력으로 강성국가건설의 전진적목표를 열어나가는 경애하는 김정은동지의 드립없는 의지와 위대한 대원수님들께서 품어주시는 주체조선의 혁명적지식인이며 당의 크나큰 믿음과 기대속에 선진수준에 명렬하게 도전하고 있다.

본사기자 김경철

경애하는 김정은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말씀하시었다.

《누구나 보석과 같은 애국의 마음을 간직하고 조국의 부강번영과 인민의 행복을 위하여 유의한 일을 스스로 찾아하여야 합니다.》

얼마전 천리마제강련합기업소를 찾았던 우리는 2호전기로 로장 김길남동무로부터 흥미있는 이야기를 들었다.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지원물자를 입고 찾아오는

모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필경 무슨 류다운 사연이 있는것 같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생산현장에 찾아와 용해공들에게 지원물자를 안겨주곤 한다는 모녀, 마침 13일이어서 우리는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 온 이들을 모녀를 생산현장에서 만날수 있었다. 로장이며 용해공들이 이들을 그들을 반겨주었다.

우리도 용해공들과 함께 신애속녀성과 그의 딸 한류경학생을 만났다. 알고보니 한류경학생의

아버지는 련합기업소의 생산과 부원인 한성철동무였다. 강철생산자의 가정자 지원자가정인 셈이었다.

신애속녀성은 모두가 알고싶어하는 13일이면 갖는 사연을 이야기하였다.

지난해 딸 류경이는 학습과 조직생활을 더 잘하고 좋은 일을 더 많이 찾아갈 결의를 담아 신애속녀성을

모녀가 있는데 그들에게 필경 무슨 류다운 사연이 있는것 같다는 것이었다.

지난해 10월부터 지금까지 생산현장에 찾아와 용해공들에게 지원물자를 안겨주곤 한다는 모녀, 마침 13일이어서 우리는 성의껏 마련한 지원물자들을 안고 온 이들을 모녀를 생산현장에서 만날수 있었다. 로장이며 용해공들이 이들을 그들을 반겨주었다.

우리도 용해공들과 함께 신애속녀성과 그의 딸 한류경학생을 만났다. 알고보니 한류경학생의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최근 강원도산원의 의료인군들이 환자치료에서 훌륭한 성과를 거두고있다. 높은 실력을 갖추기 위한 경쟁열풍이 안아온 위대한 결과이다.

양대 병원 정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보건부문의 모든 일군들은 보건사업이 지하는 위치와 중요성을 잃지 인식하고 현실발전의 요구에 맞게 보건사업을 더욱 개선강화해나가야 하겠습시다.》

병원적인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며 책임일꾼인 조주승, 김광철동무들이 갖는 주의를 들린 문제가 있었다.

그것은 지난 시기처럼 일반적으로 한급의 높은 수준에서의 자질향상계획을 세우겠다는 것이었다.

이들의 머리속에는 열마전에 있었던 일이 떠올랐다.

그년 병원으로는 시에서 좀 떨어진 곳에서 환자가 생겼으니 의사를 보내달라는 긴급한 전화가 걸려왔다.

그해 해당 과에는 두명의 의사가 남아있었는데 병원에서 그중 젊은 의사를 보내보게 하겠다. 그런데 신입의사인 서은자는 자신이 없었지만 서 주저하는것이였다. 병원에서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방조속에 1부인과의 의사들속에서는 실력을 높이기 위한 뉘뉘뉘뉘 바람이 그 어느때보다 세차게 일어났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병실의 영예를 지니게 되었으며 그 어떤 환자들도 막힘없이 치료할수 있는 경철과 직식을 소유하게 되었다.

이제는 이들의 모범을 널리 일반화하는것이 중요하였다.

그러하여 병원에서 사용하는 의료인군들로 성장한 그들을 다른 과에 한명씩 배치하여 온 병원에 실력경쟁의 열풍이 차넘치게 하였다.

이 과정에 1산과 과장 김문희, 의사 문영일동무들은 생명이 꺼져가던 최중환자들을 양육하여 나가는 기적을 창조하였으며 모든 과의 의료인군이 갖이한 병명의 환자들을 원만히 치료하기 위해 부단히 실력을 쌓아나갔다.

많은 의료인군이 전진적으로 진행되는 과학기술토론회에 참가하여 좋은 평가를 받았으며 학위학적소우자로 자라났다.

그렇습니다 병원인군들은 과장의 뜻을 비롯한 여러 계기마다 의사의 실력을 수시로 알아보고 모두를 능력이 있는 의료인군들로 준비시키기 위한 대책들을 면밀하게 세워주었다.

경쟁은 병원인군들이 자질향상을 해결하여야 할 중시과제를 잘 틀어쥐고 그에 맞게 대응을 불러일으킬 때 좋은 성과를 거둘수 있다는것을 보여주었다.

본사기자 김 옥 별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가한 동력대원들에 대한 지원사업을 해온 이들의 발걸음은 이렇게 되어 아버지가 일하는 일터, 용해장으로 이어지기 시작하였다.

비가 와도 눈이 와도 매달 13일이면 어김없이 딸애의 손목을 잡고 강철생산현장을 찾은 신애속녀성의 지성에 용해공들은 감동을 금치 못하였다.

언제인가는 알고있는 어머니를 걱정하며 딸이 지원물자를 가지고 다녀나오고 할 때 신애속녀성은 약속은 그렇게 지키는것이 아니라 더더욱 류경이의 손목을 잡고 용해장을 찾았다고 한다.

약속, 우리는 신애속녀성의 그 말을 들으며 생각하였다.

사람들은 생활과정에 이연지런 약속들을 하게 된다.

그중에서 어찌지 맡아야 할것이 조국앞에 다진 언약이다. 조국을 받드는 길에서 우리 시대 인군들사이에서 맺어지는 언약은 참되고 진실한것이어서 오늘의 대고조전투까지 그만큼 빨라지는것이 아니겠는가.

특파기자 주 창 선

## 실력과 경쟁 열풍 강원도산원에서

다른 의사를 내보내었다.

이날 같은 일은 일꾼들에게 의사의 자신성은 높은 실력을 포현되며 신입의사들의 실력을 하루빨리 높여야 할 필요성을 절감하게 하였다.

—날로 발전하는 오늘날의 시대에 실력을 높이지 않고서는 의료인군으로서의 본분을 다할수 없다. 단번에 용용할수 있도록 높은 목표를 세우고 경쟁열풍을 일으키는것이 중요하다.

일꾼들이 이렇게 결심하고 대로의 열의를 불러일으켜 세운 자질향상의 목표는 매우 높았다. 일부 사람들은 갖 들어온 신입의사들이 힘들어할 것 같겠는가 하는 의문을 제기하였다. 사실 몇해만에 신입의사들의 실력을 부쩍 높여 의료의 발달과 어깨를 나란히 할수 있게 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었다.

그러나 기술봉투자 김준길동무를 비롯한 병원인군들은 용용히나 주저하지 않았다.

만약 신입의사에게 생명이 분초를 다투는 구급환자가 제기된다면 그때에도 경합과 년한을 논하겠는가?

바로 이때 아를치고 방대한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파괴를 놓고 우는 소리를 하는 일부 의료인군들의 그릇된 사고방식에 충지부를 적으며 1부인과 1로일군들이 모두가 학위학적 소우자의 영예를 지냈을 결의 해나갔다.

과장 진명승동무는 과의 자질향상계획을 작성하면서 급수있는 의사들에게 많은 과제를 주는 것과 함께 신입의사들을 한명씩 맡도록 하였다. 매달 사업실적을 장악하고 토론회, 참고고안, 위생선진, 위태치료 및 입원환자 치료 등 회수를 종합하며 등수를 내었다.

여기에는 과장으로부터 시작하여 엇그때 들어온 의사까지 예외가 없었다.

오랜 시월부터가 더 높은 실력을 쌓기 위해 노력하니 신입의사들도 저마다 과제를 수행하기 위해 분발하고 또 분발하였다.

뿐만아니라 과에서는 의료인군들로 하여금 년간에 제시된 과제를 수행한다는 생각에 강하게 열심 학습하여 환자들의 건강을 책임지려는 깨끗하고 순결한 양심을 간직하도록 하였다.

무한한 헌신성과 높은 책임성은 자질을 모르는 열정을 낳았다. 이렇게 되어 짧은 기간에 과에서는 모든 의사들이 학위학적

## 김등벌의 실분군 향주군 삼점 협동농장 제8작업반 방장 권속동무

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삼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이곳의 한 일군은 우리를 제 8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작업반이 강병이농사에서 단연 첫차리라는 것이었다. 아닌 것 아니라 제 8작업반 방장에게 누굴 소개하든 강병이농사는 하나같이 팔복만 강병이농사였다. 작열 열매를 짓지 않았다. 웃음을 함복 담고 딸쪽에 여념이 없는 작업반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바로 대담할것이 아니라 바로 조국과 인민의 앞에서는 애국자의 자세일다.》

삼점협동농장 제8작업반 포천은 전효성분리가 많아 비가 오면 질척질척하고 가물면 안식처럼 팻팻하는 농사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던 작업반의 포천들이 권속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권속동무는 해마다 농사차비비면 마을과 읍으로 오가면서 모는 탄대어 지리들을 정보당 수습해 내곤 하였다. 트랙터로 가 못 들어가는 곳이면 달구지, 달구지가 못 들어온 돌덩이로

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삼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이곳의 한 일군은 우리를 제 8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작업반이 강병이농사에서 단연 첫차리라는 것이었다. 아닌 것 아니라 제 8작업반 방장에게 누굴 소개하든 강병이농사는 하나같이 팔복만 강병이농사였다. 작열 열매를 짓지 않았다. 웃음을 함복 담고 딸쪽에 여념이 없는 작업반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바로 대담할것이 아니라 바로 조국과 인민의 앞에서는 애국자의 자세일다.》

삼점협동농장 제8작업반 포천은 전효성분리가 많아 비가 오면 질척질척하고 가물면 안식처럼 팻팻하는 농사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던 작업반의 포천들이 권속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권속동무는 해마다 농사차비비면 마을과 읍으로 오가면서 모는 탄대어 지리들을 정보당 수습해 내곤 하였다. 트랙터로 가 못 들어가는 곳이면 달구지, 달구지가 못 들어온 돌덩이로

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삼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이곳의 한 일군은 우리를 제 8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작업반이 강병이농사에서 단연 첫차리라는 것이었다. 아닌 것 아니라 제 8작업반 방장에게 누굴 소개하든 강병이농사는 하나같이 팔복만 강병이농사였다. 작열 열매를 짓지 않았다. 웃음을 함복 담고 딸쪽에 여념이 없는 작업반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바로 대담할것이 아니라 바로 조국과 인민의 앞에서는 애국자의 자세일다.》

삼점협동농장 제8작업반 포천은 전효성분리가 많아 비가 오면 질척질척하고 가물면 안식처럼 팻팻하는 농사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던 작업반의 포천들이 권속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권속동무는 해마다 농사차비비면 마을과 읍으로 오가면서 모는 탄대어 지리들을 정보당 수습해 내곤 하였다. 트랙터로 가 못 들어가는 곳이면 달구지, 달구지가 못 들어온 돌덩이로

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삼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이곳의 한 일군은 우리를 제 8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작업반이 강병이농사에서 단연 첫차리라는 것이었다. 아닌 것 아니라 제 8작업반 방장에게 누굴 소개하든 강병이농사는 하나같이 팔복만 강병이농사였다. 작열 열매를 짓지 않았다. 웃음을 함복 담고 딸쪽에 여념이 없는 작업반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바로 대담할것이 아니라 바로 조국과 인민의 앞에서는 애국자의 자세일다.》

삼점협동농장 제8작업반 포천은 전효성분리가 많아 비가 오면 질척질척하고 가물면 안식처럼 팻팻하는 농사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던 작업반의 포천들이 권속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권속동무는 해마다 농사차비비면 마을과 읍으로 오가면서 모는 탄대어 지리들을 정보당 수습해 내곤 하였다. 트랙터로 가 못 들어가는 곳이면 달구지, 달구지가 못 들어온 돌덩이로

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삼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이곳의 한 일군은 우리를 제 8작업반으로 안내하였다.

작업반이 강병이농사에서 단연 첫차리라는 것이었다. 아닌 것 아니라 제 8작업반 방장에게 누굴 소개하든 강병이농사는 하나같이 팔복만 강병이농사였다. 작열 열매를 짓지 않았다. 웃음을 함복 담고 딸쪽에 여념이 없는 작업반원들의 모습도 인상적이었다.

위대한 령도 자 김정일 동지께서는 다음과 같이 지적하시었다.

《조국과 인민의 부름앞에서는 바로 대담할것이 아니라 바로 조국과 인민의 앞에서는 애국자의 자세일다.》

삼점협동농장 제8작업반 포천은 전효성분리가 많아 비가 오면 질척질척하고 가물면 안식처럼 팻팻하는 농사에 불리한 점이 있었다. 그러던 작업반의 포천들이 권속동무가 작업반장으로 일하면서부터 달라지기 시작하였다.

권속동무는 해마다 농사차비비면 마을과 읍으로 오가면서 모는 탄대어 지리들을 정보당 수습해 내곤 하였다. 트랙터로 가 못 들어가는 곳이면 달구지, 달구지가 못 들어온 돌덩이로

군적으로 농사를 잘 짓기로 소문난 삼점협동농장을 찾았을 때 이곳의 한 일군은 우리를 제 8



#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세계의 초점이 조선으로 모아지고 있다. 우리 조국의 약동하는 모습이 국제사회의 야경없는 찬사와 부러움을 자아내고 있다.

지난 6월 월남의 인터넷통신 전 제가 《평양의 새로운 현대적인 건축물들을 부감하면서》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를 소개하였다.

통신은 최근 조선의 수도 평양에 국제사회의 주목을 끄는 새로운 현대적인 건축물들이 많이 건설되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전하였다.

평양산원 유선중앙연구소는 유선증과 유선압을 비롯한 내성질병들의 예방과 치료로 전문으로 하는 현대적이며 종합적인 의료봉사 및 과학연구기이다.

여기에는 몇몇 나라밖에 없다는 다목적센터와 최신형의 CT, 초음파진단, 심전도설비들이 정비되어있다. 특히 먼거리의 료봉사체계가 실현되어 전국의 녀성들에 대한 정기적인 검진과 유선질병들의 조기적발 및 예방사업이 진행되고있다.

통신은 유명학과 인민외과병상, 로라스케트장을 사진과 함께 소개하였다.

이제 지난 10월에는 월남의 인터넷통신 브이엔엑스프레스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사진문헌을 모시고 문물물놀이장을 소개하였다.

통신은 경제하는 원수님의 정력적인 지도와 세심한 보살핌에 의하여 문물물놀이장은 세계적으로 보기 드물물놀이장으로 자기의 체모를 갖추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것은 원수님의 두리에 굳게 붙쳐 나아가는 조선인민의 자량으로 된다고 전하였다.

조선국의 《환구시보》도 《세계일류인 조선의 물놀이장》이라는 제목으로 우리 나라 주제 특파기자의 글을 실었다.

같은 풍치수려한 대동강반에 또 하나의 대표적인 창조물인 문물물놀이장이 일떠섰다고 하면서 문물물놀이장은 야외물놀이장과 종합적인 실내물놀이장, 실내체육관 등 여러 시설들이 갖추어져 있어 사람들이 사계절 마음껏 즐길수 있다고 지적하였다. 글은 계속하여 이곳을 찾아오는 인민들에게 더없는 환희와 웃음을 가져다 주고 있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소개하였다.

경강하미미크림대에서 미끄러져내려가는 순간 언저에는 긴장감과 쾌감, 수조에 갇힌 물고기를 풀어놓는 때와 때의 반쪽감, 인공폭포가 쏟아내리는 명산의 모양을 따서 쌓은 아름다움 산관을 감상하는 느낌 등이 다른것의 체험은 외국에서 어느 대형물놀이장에 조금도 적지 않는다. 준공한지 얼마 안되는 문물물놀이장은 평양의 새

자랑과 긍지로 되었다. 거창한 창조와 변혁속에 인민의 리상과 문명이 꽃피는 오늘 날의 현실은 우리 나라를 방문한 외국인들속에서 커다란 반향을 불러일으키고있다.

이것은 그대로 조국과 인민의 행복을 위해 낮과 밤이 따로 없이 헌신의 로고를 바쳐가고 계시는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에 대한 다함없는 흠모열기로 이어지고있다.

우리 나라를 방문한 콩공화국 정부대표단 단장인 가코 소장 클로르 문화 및 예술사는 조선인민이 자주성의 원칙을 확고히 견지하면서 사회주의건설국가건설을 다그치고있는 모습을 목격하고 깊은 감동을 받았다고 하면서 다음과 같이 언급하였다.

체류기간 우리는 조선인민의 강한 혁명성과 단란극복의 정신에 대해 잘 알게 되었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는 말이 있다. 이 말의 참뜻을 이번엔 똑똑히 확인하였다. 서방의 아용술비본도물들은 사회주의조선에 대한 위풍천 선전을 하고있다. 조선인민은 시련과 난관을 이겨내면서 심심치 않아가고있다.

... 김일성주석께서 김정일동지께서는 조선인민을 훌륭한 인민으로 키우셨으며 혁명투쟁과 건설사업에 조직 동원하시었다. 절세유일주의

혁명위업은 김정은동지에 의하여 빛나게 계승완성되고있다. 김정은동지께서는 인민의 행복을 위해 불면불휴의 로고를 바치고계신다. 그들이 높이 모시고 위대한 조선인민은 미래를 향해 힘차게 전진하고있다. 조선인민의 승리는 확정적이다.

국제노동 및 식료근로자동맹 총서기는 체류기간 조선에 대하여 잘 알게 되었다고 하면서 이렇게 토로하였다.

《보고 느낀 모든것이 상상을 초월하였다. 조선의 현실은 서방언론들이 떠돌고있는것과는 너무나 판이하다. 모든것이 인민을 위하여 풍부하고 근대적이므로 조선의 주인으로 되고있는것이 조선의 현실이다. 조선의 사회주의가 승승장구하고있는 비결의 하나가 바로 여기에 있다. 참관기사에서 열렬한 조국애를 지니고 생선과 건설에서 기적을 창조해가는 조선인민의 투쟁모습을 직접 목격하는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에게서 큰 고무를 받았다. 조선인민에 대해 널리 소개선전하려고 한다.》

파키스탄자력개발연구회 회장 자베드 아흐메드 안사리는 통라공용어판을 참관하고 경탄을 금할수 없었다고 하면서 이곳으로는 수많은 인민들이 찾아오고있다. 국가의 해택속에 행복한 생활을 누려가는 조선인민이야말로 세상에서 제일 행복

한 인민이라고 강조하였다. 프랑스 헬리오이스트레양에 네르기회사대표단 단장은 흥분된 심정을 이렇게 타력하였다.

《서방에서는 조선에 대한 날조된 선전으로 하여 옳지 못한 인식을 가지고있다. 그러나 현실은 반대이다. 조선은 모든것이 안정되어있으며 사람들도 모두가 활기에 넘쳐보람찬 로동생활을 하고있다. 조선의 현실을 보고 커다란 감동을 받았다.》

일 조후련대군마천민회의 공동대표는 오래간만에 조선을 방문하니 감회가 새롭다. 평양의 여러곳을 돌아보면서 약속하는 승격을 느꼈수 있었다고 말했다.

지금 이 시대로 세계의 수많은 벗들이 우리 나라를 찾아오고있다. 그들모두가 케부조 조선의 참현실을 느끼고있다. 하기에 그들은 남들이 부러워하는 인민의 락원을 이 땅에서 펼쳐주시는 경제하는 김정은원수님을 우러러 호모의 정을 금지 못하고있는것이다.

세계 진보적인류가 한결같이 떠치는 진정의 목소리가 누리에 메어지었다.

—조선은 참으로 살기 좋은 곳이다. 백 번 듣는 것보다 한번 보는 것이 낫다. 조선으로 가시라. 본사기자 박송영

## 나라의 자주권침해를 강력히 규탄

—이란고위직자와 아야톨라 호 모함마드 알리 모바헤디 케르마니가 8일 자국 나라에 대한 적들의 음모책동에 각성한것을 전세계 인민들에게 호소하였다.

적들의 음모를 간파하지 못한다면 언제나 재난을 겪게 될것이고 그러니 우리의 친선관계에 이바지할것이라고 말했다.

베루 아메카비청 교육 및 사회개발부장은 이번 전환회는 시한되는 조선의 정치, 경제, 문화, 특히 조선인민의 높은 문화수준에 대하여 더 잘 알수 있게 하는 좋은 계기로 될것이다. 조선로동당과 조선인민의 투쟁에서 보다 큰 성과를 있기를 바란다

—이란외무성 대변인이 5일 기자회견에서 이란이슬람교혁

명지도자 세이드 알리 카메네이에 대한 미국의 간첩행위를 강력히 규탄하였다.

카메네이가 2009년에 쿠르디스탄주를 방문하는 기간 미국이 그에 대한 간첩행위를 강력하였다는 보도가 최근에 전해진 것과 관련하여 그는 자기 나라가 인민들에 대해 특별조사를 진행할것이라고 말했다.

세계도처에서 벌어진 미국의 간첩행위는 규탄대응을 받고있다고 하면서 그는 국제공동체가 그러한 행위를 막기 위해 필요한 조치를 취할것을 호소하였다.

## 미국의 봉쇄책 동 단죄

쿠바외무장 브루노 로드리게스 베릴라가 4일 한 신문과의 회견에서 자기 나라에 대한 미국의 봉쇄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

그는 미국의 봉쇄책동은 완전히 비법적이며 인도주의에 관한 국제법과 무력의 자유 등에 대한 탄복한 침해이라고 단죄하였다.

## 이란의 평화적 핵개발 지지

파키스탄의 한 종교지도자가 7일 이라나통신과의 회견에서 이란의 평화적핵개발을 지지하는 입장을 표명하였다.

그는 지난 수십년간 이란은 모든 조건들을 성과적으로 물리치고 평화의 길을 걸어왔다고 하면서 이란의 지도자들은 서방의 압력과

## 이탈의 평화적 핵개발 지지

제재에도 불구하고 나라의 평화적 핵개발을 절대 포기하지 않을것이라고 말했다.

서방나라들은 이란에 대한 부당한 제재를 즉시 중지하고 이란정부와 인민의 핵개발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그는 강조하였다.

## 이스라엘의 정탐행위 비난

레바논정정부 국방상이 7일 성명을 발표하여 자기 나라에 대한 이스라엘의 정탐행위를 단죄하였다.

그는 최근 이스라엘이 나라의 남부지역에 가까이 새 로운 정탐설비를 설치한데 대해 폭로하고 이것은 레바논을 약화시키기 위한 적들의 책동을 강력히 규탄하였다고 말했다.

## 이것이 미군의 진짜 모습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있다. 미지배층은 그것을 해당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인권보호》를 위한것으로 묘사

하고있다. 이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하지만 미지배층이 온갖 미사여기로 분칠하고있는 미군의 진면모는 과연 어떠한가.

《평화》간판에 피습감을 한 야수의 무리들 미해병대 제 1사단 기지장이란 자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것은 즐겁고 유희한 일이다. 알 것은, 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조슈아 벨라일이 라는 미해병대병사가 한

여기에 미국이 쿠비밀리에 진행된 《주요한 반테러작전》에 참가하였던 미해군특수부대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작전이 끝난 후 본국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영웅》으로 떠돌아다니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살아야겠다고. 문제는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하루를 공포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보세르》들이 《반테러작전》에 참가하여 큰 《공을

지금으로부터 33년 전인 주제 69(1980)년 10월 뫼트는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가 진행될 평양으로서는 수많은 외국이 벗들이 찾아왔다. 그들속에는 기네대통령과 그 일행도 있었다.

위대한 수령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와 당창건 35돐을 경축하기 위하여 대륙과 대양을 넘어 우리 나라를 찾아온 아흐메드 세쿠 투레대통령을 몸소 비행장에 나가서 맞이하여 맞이 해주시고 속속까지 동행하시었다. 당대회준비를 그처럼 바쁘신 속에서도 의례방문하여온 그를 또다시 만나주신 수령님께서 그날 저녁에는 기네대통령과 그 일행을 위하여 성대한 환영연회를 마련해 주시었다. 평양에 도착한 순간부터 그대의 하루 하루를 위대한 수령님의 크나큰 관심 속에 돌리었다.

드디어 10월 10일 세계의 이목이 집중된 가운데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가 개막되었다. 첫날 회의에 참가한 대통령과 그 일행은 위대한 수령님의 보고를 주의깊게 들으면서 흥분된 마음을 진정하지 못하였다. 위대한 수령님께서 당대회보고에서 하시는 말씀 한마디 한마디가 조선인민뿐 아니라 전세계반제 주력량이 나아갈 길을 환히 밝

혀주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주제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탁월한 령도자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었다. 그 들은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에 벌써 그이는 태양과 같이 위대한분신이라고 경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승중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였다. 첫날회의가 끝난 후 속소에 도착한 그들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첫날회의에서 받은 격정에 대하여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더니 안내를 맡은 일꾼으로부터 다음날회의일이 연기되어졌다 는 소식이 나왔다. 내용은 기네 대표단을 위하여 다음날회의일정을 미루고 그후로 예정되었던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 경축하는 평양시 100만명 근로자들의 시위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앞당겨 한다 는 것이었다.

원래일정은 10월 10일과 11일은 당대회를, 12일에는 경축행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영문을 몰라 여러동렬해 있는 대통령과 그 일행에게 해당 일꾼이 말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네대표단이 자기 나라의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게 되어있는데 대해 보고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사과사죄에서 우리 나라에 있어 당대회에만 참가하고 중중시위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고

## 친선의 정 드겁게 어린 조치

이것이 미군의 진짜 모습이다

## 고속도로건설계획

—중국 강성에서 고속도로 건설을 힘있게 벌리고있다. 성에서는 2015년말까지 총연장길이가 510km에 달하는 3개의 고속도로를 새로 건설할것을 목표로 내세우고 이 사업을 다그치고있다.

## 마약반대 투쟁

—이란의 남부코라산주에서 반마약투쟁에 힘을 넣고있다. 주에서는 3월 29일에 시작된 이란전도의 첫 7개월동안에 35이상의 각종 마약을 적발할수하였던 4 714명의 마약판매범죄자를 체포하였다. 6일 주정찰당국이 이에 대해

말했다. 알바니아경찰이 5일 기로카스트라코의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였다. 작전과정에서 약 150kg의 마리 후아나가 적발입수되었다.

—아르헨티나의 경찰이 최근 수도와 그 교외지역에서 마약수색작전을 벌였다. 작전결과 그들은 140kg의 코카인을 적발입수하고 10여명의 마약범죄자를 체포하였다.

## 옷수출 증가

—캄보디아에서 올해 1월부터 10월까지 옷수출액이 지난해 같은 기간에 비해 24% 증가하였다. 7월 이 나라 상업성이 이에 대해 말했다.

## 필리핀에서 래 품 회 해

필리핀의 중부지역에서 8일 태풍이 들이닥쳐 피해를 입었다. 태풍으로 3명이 목숨을 잃고

## 실업자 증대

미국에서 심각한 경제침체로 실업자가 계속되고있다. 7월 미로동성은 조사자료를 인용하여 2일까지의 지난 1주 동안에 전국적으로 새로 등록된 실업자가 33만 6 000명에 달하였다고 말했다.

희우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주제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탁월한 령도자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었다. 그 들은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에 벌써 그이는 태양과 같이 위대한분신이라고 경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승중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였다. 첫날회의가 끝난 후 속소에 도착한 그들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첫날회의에서 받은 격정에 대하여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더니 안내를 맡은 일꾼으로부터 다음날회의일이 연기되어졌다 는 소식이 나왔다. 내용은 기네 대표단을 위하여 다음날회의일정을 미루고 그후로 예정되었던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 경축하는 평양시 100만명 근로자들의 시위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앞당겨 한다 는 것이었다.

원래일정은 10월 10일과 11일은 당대회를, 12일에는 경축행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영문을 몰라 여러동렬해 있는 대통령과 그 일행에게 해당 일꾼이 말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네대표단이 자기 나라의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게 되어있는데 대해 보고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사과사죄에서 우리 나라에 있어 당대회에만 참가하고 중중시위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고

희우는 강령적인 가르치심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주제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탁월한 령도자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었다. 그 들은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에 벌써 그이는 태양과 같이 위대한분신이라고 경탄을 금지 못하였다.

그들이 위대한 장군님의 승중한 위인적풍모에 대하여 가슴뜨겁게 느끼게 된것은 그로부터 얼마 지나서였다. 첫날회의가 끝난 후 속소에 도착한 그들이 조선로동당 제6차대회 첫날회의에서 받은 격정에 대하여 한창 이야기를 나누고있을 때였다. 갑자기 전화종소리가 울리더니 안내를 맡은 일꾼으로부터 다음날회의일이 연기되어졌다 는 소식이 나왔다. 내용은 기네 대표단을 위하여 다음날회의일정을 미루고 그후로 예정되었던 조선로동당창건 35돐과 당 제6차대회 경축하는 평양시 100만명 근로자들의 시위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앞당겨 한다 는 것이었다.

원래일정은 10월 10일과 11일은 당대회를, 12일에는 경축행사를 하는것으로 되어있었다. 영문을 몰라 여러동렬해 있는 대통령과 그 일행에게 해당 일꾼이 말해주었다. 위대한 장군님께서 기네대표단이 자기 나라의 사정에 의하여 귀국하게 되어있는데 대해 보고받으시고 대통령께서 사과사죄에서 우리 나라에 있어 당대회에만 참가하고 중중시위를 비롯한 각종행사를 보지 못하고 돌아가게 된다면 얼마나 섭섭하겠는가고

희우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주제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탁월한 령도자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었다. 그 들은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에 벌써 그이는 태양과 같이 위대한분신이라고 경탄을 금지 못하였다.

희우의 강령적인 가르치심이기 때문이었다. 더구나 그들의 마음을 사로잡은것은 주제혁명 위업을 빛나게 계승해나가실 탁월한 령도자로 세계적인 존경을 받으시는 김정일동지의 위인상이었다. 그 들은 김정일동지를 처음으로 뵈옵는 순간에 벌써 그이는 태양과 같이 위대한분신이라고 경탄을 금지 못하였다.

##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미술전람회 여러 나라에서 진행

조선로동당창건 68회에 즈음한 우리 나라 도서, 사진, 미술전람회가 최근 로씨야, 벨라리아, 베루에서 진행되었다.

전람회장에는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의 불멸의 당건설령도업적과 선군혁명업적 등을 담은 사진문헌들이 모셔져 있었다.

또한 백두산절세위인들의 불후의 고전적로작들과 선군조선 소개하는 도서, 사진들, 우리 인민의 슬기와 재능이 깃든 미술작품들이 전시되어있었다. 전람회개막식에서는 해당 나

## 진행

라의 각계 인사들과 군중이 참가하였다.

로씨야 모스크바주 뽄돌스크시 부시장은 다음과 같이 강조하였다.

위대한 김일성동지와 김정일동지의 현명한 령도에 의하여 조선로동당은 백전백승의 길을 걸어왔으며 세계에서 가장 권위있는 당, 일심단결의 당으로 뛰어나고있다.

경제하는 김정은동지에 의해 조선로동당은 더욱 강화발전되고있다. 공화국은 정치사상강국, 군사강국으로서의 위용을 높여 떨치고있다.

## 분쟁에 대한 미국의 간섭 배격

—중국외교부 대변인 홍희가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며 미국은 조어도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연국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조어도에 대한 이른바 일본의 《주권》을 미국정부가

인정해야 한다고 주장한것과 관련하여 그는 제2차 세계대전이 끝났을 때의 유관국제문헌들은 이미 조어도가 법적으로 중국에 귀속되어 있다는것을 확인하였다고 말했다.

20세기 70년대초에 미국과 일본이 사적으로 조어도를 주고

## 중 국 외 교 부 대 변 인 조 어 도

중국외교부 대변인 홍희가 최근 정기기자회견에서 조어도는 중국의 고유한 령토이며 미국은 조어도분쟁의 당사자가 아니라 조연국이라고 말했다.

얼마전 미국신문 《월 스트리트 저널》이 조어도에 대한 이른바 일본의 《주권》을 미국정부가

## 여 러 나 라 들 의 협 조

—중국과 브라질이 6일 우리나라의 전략적 동반자관계를 확대발전시키기로 합의하였다.

같은 날 쿠바와 베네수엘라는 상품생산 및 류통분야에서 쌍무협조를 강화할데 대한 협정을 체결하였다.

## 미국의 무모한 핵무기현대화 책동

미국이 막대한 돈을 낭진하며 핵무기현대화책동에 계속 매달리고있다.

최근 미국방성은 앞으로 약 9 년동안에 대형핵무기들을 현대화할것이라고 밝혔다.

## 인 종 차 별 반 대 시 위

미국의 시카고에서 7일 인종차별을 반대하는 중국인들의 시위가 벌어졌다.

최근 미국의 ABC방송이 중국인들을 차별시하는 방송중보이를 방영한것과 관련하여 일어난 시 위에는 수백명의 중국인들이 참

## 파업

에스파냐의 마드리드에서 최근 도로관리공들의 파업이 번일 벌어졌다. 생활조건개선을 요구하여 8일까지 나흘째 계속된 파업에 시내의 많은 도로관리공들이 참가하였다. 파업으로 시내 거리마다 각종 상자와 물병, 음식찌꺼기 등 오물들이 쌓여 혼란이 조성되었다.

## 신형특갑포해

온두라스에서 최근 신형특갑이 퍼져 피해를 입고있다. 6일 현재 전국적으로 91명이(AHINI)형 돌림감기비루스에 감염된것으로 확인되었으며 3명의 사망자가 발생하였다.

정부에서 여러 지역들에 약관을 보내주는 등 병의 전파를 막기 위한 긴급조치를 취하고있다.

## 로틀 사고

인디아의 구자라트주에서 7일 화물자동차 2대의 승승차들 들이받이 6명이 목숨을 잃고 2명이 부상당하였다. 이보다 앞서 6일 케냐의 서부지역에서는 2대의 버스 충돌하여 6명이 숨지고 31명의 부상자가났다.

## 그런데도 미당국자들은 확대와 고문을 반대하여 단식투쟁을 벌리는 그들에게 강제급식을 시키는것이 마치 《인도주의적방법》이라고 되는것처럼 여론을 오토하고 군인들을 시켜 집을 도둑을 훔칠것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판마노미해군기지감독과 아르가니스산, 이라크의 미군기지에서 수감자들을 대상으로 진행된 특목과 기록들에 기초하여 작성된 보고서의 의사를 까지 수감자들을 고문하고 확대하는 야수로 전락시킨 미국

면관없는 최경은 사람들이며 무명을 씌워 10년이상 가두어두고 인간이하의 학대와 고문을 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 한 의무를 짓밟고 인간에게 더 큰 고통을 들리우는데 의사를 내몰고있다.

수감자를 고문할 때 인체에 참가 어려운 아픔과 고통을 안겨줄수 있는 방법을 연구하고 도입하는것이 바로 미국 군인들의 《임무》로 되었다.

이러한 인간중요사항을 몰랐을 때는 오도하고 군인들을 시켜 집을 도둑을 훔칠것을 하게 하였던것이다.

미국이 이 감옥에서 데로라는 면관없는 최경은 사람들이며 무명을 씌워 10년이상 가두어두고 인간이하의 학대와 고문을 하고있다는것은 세상이 다 아는 사실이다.

## 이것이 미군의 진짜 모습이다

지금 세계 곳곳에 미군부대가 주둔하고있다. 미지배층은 그것을 해당 나라와 지역의 《평화와 안전보장》, 《인권보호》를 위한것으로 묘사

하고있다. 이것은 완전한 기만이다. 하지만 미지배층이 온갖 미사여기로 분칠하고있는 미군의 진면모는 과연 어떠한가.

《평화》간판에 피습감을 한 야수의 무리들 미해병대 제 1사단 기지장이란 자는 사람을 총으로 쏘아죽이는 것은 즐겁고 유희한 일이다. 알 것은, 나는 총포소리와 사람들의 비명소리를 들을 때가 좋다고 지적하였다.

2006년 조슈아 벨라일이 라는 미해병대병사가 한

여기에 미국이 쿠비밀리에 진행된 《주요한 반테러작전》에 참가하였던 미해군특수부대 병사에 대한 이야기가 있다.

그는 작전이 끝난 후 본국에 돌아오면서 자기가 《영웅》으로 떠돌아다니고있다고 생각하였다. 그러나 그것은 한참 망상에 지나지 않았다.

그는 극심한 생활고에 시달리면서 죽지 못해 살아야겠다고. 문제는 그와 그의 가족이 하루하루를 공포속에 살아야 하는 것이다. 《보세르》들이 《반테러작전》에 참가하여 큰 《공을